1. 일반 정보

유형	■ 모의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사회)계열 / (Ⅰ)문항

2. 2027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출제 근거 - 자료출처

교과서 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불평등의 패러독스』	김만권	개마고원	2004	127~128	제시문 [가]	○
『선택할 자유』	밀턴 프리드먼	자유기업원	2022	269-270	제시문 [나]	○
『병목사회』	조지프 피시킨	문예출판사	2016	197-199	제시문 [다]	○

3. 2027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항 해설

본 논술고사에서는 경희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추구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논제 Ⅰ]을 출제하였다. [논제 Ⅰ]은 제시문 [다]의 내용이 제시하는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와 [나]의 입장을 평가하는 문제로, 불평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어떤 완화 방식이 정당하고 효과적인지를 세 제시문의 입장 차이를 이해한 뒤, 자신의 이해와 판단을 요약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각 제시문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불평등의 패러독스』	김만권	개마 고원	2004	127-128	제시문 [가]	○
『선택할 자유』	밀턴 프리드먼	자유 기업원	2022	269~270	제시문 [나]	○
『병목사회』	조지프 피시킨	문예 출판사	2016	197-199	제시문 [다]	○

제시문 [가]는 김만권의 『불평등의 패러독스』에서 발췌한 것으로서, 불평등과 사회적 행운에

관해 고찰하고 있다. 김만권은 개인의 재능보다는 출생, 교육, 상속이라는 사회적 행운이 부의 불평등을 낳는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행운은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기에 불평등은 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강력한 상속세와 누진세를 부과하여 부의 재분배를 이루고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나]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결과의 평등을 사회 조직의 기본 원리로 삼아 '공평한 몫'을 강제하려는 시도가 개인의 자유와 충돌한다고 본다. 누군가가 공평한 몫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강제하게 되면, 분배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과 그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 권력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각자가 생산한 결과와 무관하게 몫이 배분된다면 노동과 생산의 유인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강제력이 동원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나]는 불평등의 원인을 개인의 타고난 재능이나 본성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강제적 재분배와 결과의 평등이 자유와 생산 유인, 사회적 권력 관계에 미치는 문제점을 비판하는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 가깝다.

제시문 [다]는 조지프 피시킨의 『병목사회』에서 발췌한 것으로서, 기회의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성찰하고 있는 글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불평등이 개인적인 재능과 사회적 기회 구조의 누적적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 불평등의 원인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있고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시도 또한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서 찾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불평등의 해소는 사회의 기회 구조를 넓히고 개인의 다양한 역량을 발달시켜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논제 I]은 세 개의 지문을 제시하고, 한 지문의 내용과 관점을 바탕으로 다른 두 지문의 내용과 관점을 파악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각 지문의 내용을 분별적으로 이해하고 요약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4. 2027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논제 I	점수 배정 ① 만점: 각 논제 당 100점(두 논제 도합 200점) ② 기본 점수: 60점 -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 백지 및 답안과 관련 없는 글, 특별한 표시는 0점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0점)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① 띄어쓰기를 포함한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100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백지이거나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해당 채점위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처리한다.

2) 원고 분량에 대한 감점
① 원고 분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술 내용을 중시)
② 아래의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
③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논제 I> 801 이상 ~ 900자 이하
700자 미만: 감점 40점
700자 이상 ~ 750자 미만: 감점 20점
950자 이상 ~ 1,000자 미만: 감점 20점
1,000자 이상: 감점 40점

3) 원고 분량에 대한 기준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을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한다.
③ 주어진 필기도구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간주한다. (예: 연필로 작성한 부분은 무효처리)

채점 기준: 내용평가

1) <논제 I>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① 제시문 [다]의 관점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10점 가점
②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가],[나]의 요지와 한계를 정확히 지적했으면 10점 가점
③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했으면 20점 가점(창의성 및 표현력 등을 중시)

※ 채점 시 유의사항

(1) 제시문 [가]~[다]는 각각 '사회적 행운에 의해 불평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 '결과의 평등을 강제하는 분배가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고 생산 유인을 약화시키며 새로운 권력 불평등을 낳는다고 비판하는 입장', '불평등은 개인적인 특성과 사회적 기회 구조의 누적적 상

호작용의 결과이므로 다양한 발달 기회의 제공을 통해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 등 불평등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글이다.

제시문 [가]는 불평등은 사회적 행운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상속과 출생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없기에 누진세율과 같은 세금 정책을 통해서 이를 교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시문 [나]는 결과의 평등을 사회 조직의 기본 원리로 삼아 분배를 강제하려는 시도는 개인의 자유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고 본다. 제시문 [다]는 사회 불평등을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기회 구조가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한 누적적 결과로 본다. 불평등은 완전히 개인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완전히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완화 방안 역시 단순한 소득 재분배를 넘어 교육, 직업 훈련, 평생 교육과 같은 다양한 발달 기회를 일생에 걸쳐 제공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볼 때, 제시문 [가]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과 교정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다]의 입장에서 제시문 [나]는 결과를 획일적으로 같게 만드는 방식이나 단순한 소득 재분배만으로는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는 점에서 [다]와 일부 연결되나, 개인의 역량이 사회적 기회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교육·직업·훈련·평생 교육과 같은 사회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2) 제시문 [다]의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와 [나] 내용의 요지와 유사점 및 한계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경우 높게 평가한다.

(3) 각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보다는 얼마나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하였는가를 중시한다.

5. 2027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예시답안

제시문 [다]는 사회 불평등이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기회 구조가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개인의 역량은 타고난 특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직업 기회와 같은 사회적 조건 속에서 발달한다. 따라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소득 재분배를 넘어, 개인의 다양한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의 입장에서 [가]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가]는 출생, 교육, 상속과 같은 사회적 행운이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불평등을 낳는다고 보고, 이를 누진세와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평등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가]는 [다]와 유사하다. 그러나 [가]는 불평등의 원인을 주로 사회적 행운과 상속 구조에서 찾고, 해결 방안도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에 초점을 둔다. 이 점에서 [다]의 관점에서는 [가]가 개인의 역량 형성과 사회적 기회 구조의 상호작용, 그리고 교육과 직업 훈련 등 지속적인 발달 기회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의 입장에서 [나]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결과의 평등을 강제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며, 생산 유인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권력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결과를 획일적으로 같게 만드는 방식에는 비판적이다. 이 점에서 [나]는 단순한 결과의 평등이나 소득 재분배만으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다]와 일부 연결된다. 그러나 [나]는 개인의 역량이 사회적 기회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교육, 직업 훈련, 평생 교육과 같은 사회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총 893자)

1. 일반 정보

유형	■ 모의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사회)계열 / (Ⅱ)문항

2. 2027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출제 근거 - 자료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	2017	148, 151	제시문 [마]	×

교과서 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글로벌 무역의 이해』	앨허넌 헬프먼	시그마프레스	2013	23-24	제시문 [라]	○
『세계화와 무역』	정한경 외	형설출판사	2007	18-19	제시문 [바]	○
『20세기 경제사』	브래드퍼드 들롱	생각의힘	2024	85-86	제시문 [사]	○

3. 2027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항 해설

2027학년도 모의 논술고사에서는『고등학교 통합사회』교과서 내용 중 시장 경제와 금융의 부분에서 출제하였다. 특히 국제 거래, 즉 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국제 거래의 확대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국제 거래의 확대로 인한 문제점을 기술하고 있는 지문들을 선별하였다. 아울러 무역의 확대로 인한 이익과 문제점을 묘사하고 있는 도표 지문을 추가하였다. 각 제시문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글로벌 무역의 이해』	앨허넌 헬프먼	시그마 프레스	2013	23~24	제시문 [라]	○
『고등학교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	2017	148, 151	제시문 [마]	×
『세계화와 무역』	정한경 외	형설출판사	2007	18~19	제시문 [바]	○
『20세기 경제사』	브래드퍼드 들롱	생각의힘	2024	85-86	제시문 [사]	○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라]는 헬프먼의 『글로벌 무역의 이해』에서 발췌하였다. [라]는 글로벌 무역의 근간이 되는 국가간의 비교 우위의 개념을 영국의 옷감과 포르투갈의 포도주 생산이라는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비록 포르투갈이 옷감과 포도주 생산 모두에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비교 우위가 있는 포도주 생산에 특화하고 영국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옷감 생산에 특화하여 생산한 후 두 상품을 서로 교환할 때, 그것이 결국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제시문 [마]는 비상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발췌하였다. [마]는 국제 거래의 확대로 인한 문제점을 열거하고 있다. 국가 간 무역이 확대되면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이나 기업은 위축될 수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이 발생하면, 수출 환경이 나빠지고, 연관 산업의 생산이 타격을 받아 국내 경제가 불안해질 수 있다. 또한 자유 무역의 확대는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

제시문 [바]는 정한경 외의 『세계화와 무역』에서 발췌하였다. 무역의 상반된 두 측면 즉, 수출과 수입의 이점을 열거하고 있다. 수출은 소비자들이 품질이 우수하고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된다. 또한 수출은 고용과 국민소득을 증대시켜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수입은 기업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을 증대시키고,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던 원재료나 부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 생산 증대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수입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여 결국 국내 소비자들의 후생수준이 향상되게 된다.

제시문 [사]는 경제학자 브래드퍼드 들롱의 『20세기 경제사』에서 발췌하였다. 이 글은 주변부 경제국들이 왜 플랜테이션 농업에 전문화하고 현대적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것에 실패하였는지를 선진국과의 관계에서 설명한다. 자유무역이 당연시 여겨지는 시대에 식민지를 지배했던 많은 선진 공업국들은 피식민지가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나 장래의 성장이 기대되는 유치산업을 일정 기간 보호하려는 시도를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후발국에서는 제조업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이 충분히 축척되지 못했고 이는 19세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가장 수익성이 높고 혁신에 유리한 경제활동을 서구 선진국에 집중되게 만들었다.

[논제 Ⅱ]는 이와 같은 지문들을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그중 한 입장을 선택하여 요약하고, 제시된 지문들과 <자료>를 이용해서 다른 입장을 가진 지문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험생들의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4. 2027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논제II	점수 배정 ① 만점: 각 논제 당 100점(두 논제 도합 200점) ② 기본 점수: 60점 -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 백지 및 답안과 관련 없는 글, 특별한 표시는 0점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0점)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① 띄어쓰기를 포함한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백지이거나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해당 채점위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처리한다. 2) 원고 분량에 대한 감점 ① 원고 분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술 내용을 중시) ② 아래의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 ③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논제 II> 1,001 이상 ~ 1,100자 이하 900자 미만: 감점 40점 900자 이상 ~ 950자 미만: 감점 20점 1,150자 이상 ~ 1,200자 미만: 감점 20점 1,200자 이상: 감점 40점 3) 원고 분량에 대한 기준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을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한다. ③ 주어진 필기도구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간주한다. (예: 연	100

필로 작성한 부분은 무효처리)

채점 기준: 내용평가

2) <논제 II>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① 제시문을 국제 거래의 확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술하고 있는 [라]와 [바], 국제 거래의 확대로 인한 문제점을 기술하고 있는 [마]와 [사]로 분류하였으면 10점 가점
② 국제 거래의 확대로 얻을 수 있는 이익 또는 문제점을 제대로 요약하였으면 10점 가점
③ <자료>의 표를 올바르게 해석하여 비판에 제대로 적용하였으면 10점 가점
④ 특정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가진 제시문들을 각각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면 10점 가점

※ 채점 시 유의사항

(1) 제시문 [라]~[사]는 국제 거래의 확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강조하는 [라], [바]와 문제점을 강조하는 [마], [사]로 나뉜다. 논제 II는 지문들을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그중 한 입장을 선택하여 요약하고, 제시된 지문들과 <자료>가 있는 지문을 이용해서 다른 입장을 가진 지문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표를 이용함이 없이 상대 입장의 지문을 평가한 답안은 좋은 답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선택한 제시문 [라], [바]의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 [사]의 요지와 한계를 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또는 선택한 제시문 [마], [사]의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 [바]의 요지와 한계를 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높게 평가한다.
(3) 각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보다는 얼마나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하였는가를 중시한다.

5. 2027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예시답안

<예시답안1>

제시문 [라]~[사]는 국제무역 확대의 장단점에 대해 논한다. [라]와 [바]는 국제무역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마]와 [사]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다.

나는 [라]와 [바]의 입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각국이 상대적으로 더 잘 생산하는 재화에 특화하고 교환하면 모두 이득을 얻는다고 설명한다. 특히 한 국가가 모든 재화 생산에서 절대우위를 갖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재화에 특화하면 무역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바]는 수출은 시장을 넓혀 규모의 경제와 고용 확대를 가능하게 하고, 수입은 경쟁을 촉진하며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와 [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 첫째, [마]와 [사]는 무역의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이득을 간과하고 있다. <자료>에서 GDP 대비 수입액과 수출액

비율이 상승한 기간에 소비재 품목 수는 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낮아졌다. 이는 [바]에서 설명한 것처럼 무역 확대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가격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낳았음을 보여 준다. 둘째, [마]와 [사]는 무역이 취약 산업을 위축시키고 후발국의 산업화를 어렵게 한다고 비판한다. <자료>에서 무역이 확대된 기간에 제조업 고용이 감소한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반드시 국제무역 확대의 영향으로 볼 수만은 없다. 기술 변화도 제조업 고용 감소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 증가로 인한 물가 하락과 수입 품목 확대는 소비자에게 이득을 제공하며, 수출 확대는 새로운 시장을 통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의 유치산업 보호는 산업을 육성하는 시기에는 타당할 수 있지만, 장기간의 보호는 비효율적 기업을 유지시키고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또한 보호무역은 국제 경쟁 압력을 약화시켜 기업의 혁신 유인을 줄일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역 확대를 제한하기보다 무역 확대의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 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40자)

<예시답안2>

제시문 [라]~[사]는 국제무역 확대의 장단점에 대해 논한다. [라]와 [바]는 국제무역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마]와 [사]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다.

나는 [마]와 [사]의 입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마]는 국가 간 거래가 확대되면 경쟁력이 약한 산업과 기업이 위축되고, 관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며, 무역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에 의해 국내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는 주변부 경제국의 산업화에 자유 무역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선진국은 초기 비용 우위를 바탕으로 제조업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고, 후발국은 수익성이 높지 않은 산업에 특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라]와 [바]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 첫째, [라]와 [바]는 국제 거래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균형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자료>에서 1970년 이후 GDP 대비 수입액과 수출액 비율은 모두 상승했지만, 제조업 고용 규모는 감소하고 임금 불평등 지수는 상승했다. 이는 [마]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제무역 확대로 일자리 감소와 불평등 심화 등의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바]는 수입을 통해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무역의 장점을 설명한다. <자료>에서 수입 소비재 품목 수가 늘고 소비자물가지수가 낮아진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물가가 낮아진 것을 수입 확대의 영향으로만 단정할 수 없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구매력이 낮아진 것도 물가 하락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또한 물가 하락과 소비 선택권 확대로 인한 이익이 제조업 고용감소와 노동시장 불평등 심화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셋째, [라]는 각국의 비교우위가 변화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사]가 지적하듯 수익성이 높은 산업으로의 산업화는 자국 산업 육성 및 보호 정책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인 산업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무역의 확대는 후발국이 수익이 높고 혁신적인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1,073자)